

# 전주지역 최초 마을재생 박람회 열린다

### 노송동지역발전협의회 · 전주동초등학교, 내일부터 이틀간 '노송골 마을재생 박람회' 개최

전주 원도심 학교와 마을주민들이 전주지역 최초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을재생 박람회를 연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노송동지역발전협의회와 전주동초등학교는 내일과 10일 이틀간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2016 노송골 마을재생 박람회'를 개최한다.

'천년 전주의 심장, 노송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마을재생의 나아갈 방향을 지역학교와 주민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차별화된 마을이 아기를 탐색·연구·재생산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익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았다.

이번 마을재생 박람회에서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노송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마을소상공인과 온누리 공동체, 학생단체 등 노송골 주민들과 통놀이 맥, 전주시 청년문화예술 협동조합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지역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예술·종교 체험부스 및 지역장터가 운영된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의 전통부채 만들기 시연 및 전시체험 △노송골 시조시인과 함께하는 시조의 이해 체험 △노송골 덕암전생님과 함께하는 '가훈을 써주세요', △노송동 방앗간과 함께하는 떡매치기, △노송골 마을공동체의 이해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등이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 노송골 거

리 조성 △주민들 입으로 듣는 생생한 노송골 변천사(1980~2010년대) △벽화로 쉽게 보는 후백제 역사 △떠가는 구름따라 돌아보는 노송골 둘레길 △생동감 넘치는 노송골 교육 △꼭 알아야 한 노송골 역사적 인물 등이다.

또, 학생들이 그린 노송골 미래지도와 희망찬 노송골의 미래가 담긴 노송골 지형모델 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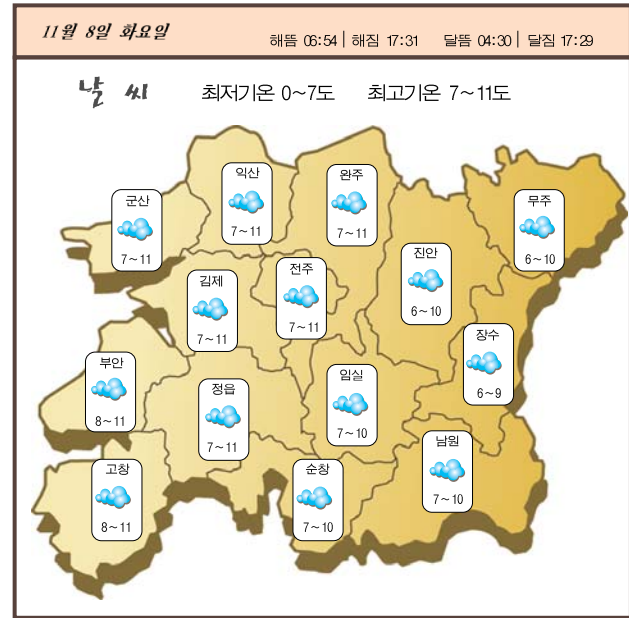
특히 박람회 이틀째인 오는 10일에는 올 한해 전주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 및 교사들과 함께 추진해온 '노송골 마을재생 교육 프로젝트'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또, 노송골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박람회에서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전주시청 사진전과 국립전주박물관 전시, 후백제연구회 전시 등의 특별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마을재생 박람회는 원도심 학교 학생들이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 이웃들이 함께 마을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의미있는 행사"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노송동과 전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노송동 마을재생의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인식 함양으로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해나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생 170명이 재학생인 전주동초등학교는 올해 △학교와 마을 관계 잇기 △마을 교육공동체 구성 △노송동에 관한 연구와 실천 △마을의 성장과 발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전주시, 5개 마을기업 네트워크 간담회

전주시와 전주지역 마을기업들이 상생 모델 발굴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7일 화전정보화마을에서 전주시 5개 마을기업 대표들과 마을기업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마을기업들이 사업운영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학습을 통해 관료구족과 매출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익산시 마을기업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마을기업인 함해국과 실외가기를 방문해 각 마을기업별 우수사례와 협업우수사례 등을 청취했다.

익산시 마을기업협의회는 현재 익산지역 10개 마을기업이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명절 꾸러미상품 판매와 공동 관촬활동 정기적인 모임운영을 통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명절에는 10개 마을기업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꾸러미상품을 판매해 공공기관 및 일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복순 전주시 마을기업협의회 회장은 이날 "전주시는 도심지역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마을기업의 수가 적지만 5개소 마을기업이 상호 신뢰와 협력 속에 우수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공 모델 발굴로 전주시에 더 많은 마을기업들이 육성돼 지역공동체의 소득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는 현재 5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전주푸드와 사회적경제공동 판매장 등에 유통시키고 있다. 또, 농촌체험 및 한옥마을가방 전통문화체험 등을 사업모델로 삼고 있다.

## 도교육청, 정부의 호국보훈교육 의무화 반대

김 교육감, '철저하게 막을 것'

전북교육청이 정부의 호국보훈교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 확대 간부회의에서 "호국보훈교육은 냉전 사고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호국보훈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고정형 명찰을 없애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 참신한 조경디자인 아이디어 제안

###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 학생들, 백제대로 조경디자인 답은 졸업작품 전시회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전주의 미래를 바꿀 참신한 조경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박재철 교수)는 이날 학교 로비에서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우석대학교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조경도시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녹색가로소 △백제로 전주로 △도시 속 자연마당 등 전주시 주요현안사업인 '백제대로 열린녹지 조성'을 주제로 한 3개 작품과 '전주동물원'을 주제로 △삼자연 꿈꾸다 등 총 7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백제대로 열린녹지조성과 관련된 참신하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위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소개와 사업방향 시정현안 홍보 등을 통해 참여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졸업작품전을 통해 대학생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및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그린네트워킹을 조성하기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조경도시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전주시 주요현안사업인 '백제대로 열린녹지 조성'을 주제로 한 3개 작품과 '전주동물원'을 주제로 총 7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및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그린네트워킹을 조성하기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해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